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4월 24일(금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미 기업들, 달러 강세 충격
- 2) 나스닥, 장중 15년만에 역대 최고 마감가 상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, 희토류(Rare earth resources) 수출관세 폐지
- 2) 위안화, 가치 상승 전환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우버, 중국에서 항공 서비스 출시 계획
- 2) 컴캐스트·타임워너 합병, 규제당국 반대에 결국 철회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미 기업들, 달러 강세 충격

- 달러 강세 충격이 자동차, IT, 항공, 의약, 패스트푸드 등 미국 재계 전반, 특히 미국 재계의 모든 기업, 특히 대형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
 - 지난 23일 AP통신은 S&P 500지수 편입 기업의 올해 1·4분기 수익이 연율로 평균 4% 증가할 것으로 지난해 말에 관측됐으나 실제로는 3% 감소로 나타났다고 보도
 - AP는 달러 가치가 올해 들어서만 다른 주요 통화보다 평균 8% 상승한 것이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
- 한편, 매출의 절반이 국외에서 나오는 페이스북은 지난 1분기 매출이 연율 42% 상승했으나 달러 강세가 아니었으면 그 폭이 49%에 달했을 것으로 관측

2) 나스닥, 장중 15년만에 역대 최고 마감가 상회

- 지난 23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지수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
 - 전문가들은 정보기술(IT) 기업의 실적 호조와 바이오 기업의 가세, 미 중앙은행(Fed)의 기준 금리 인상 시점 연기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
- WSJ은 달러 강세의 역풍에 고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며 전반적 투자심리가 개선되고있다고 지적
 - 나스닥 종목인 페이스북과 이베이가 전날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조정 주당순이익(EPS)을 발표한 것과 오는 24일 애플 자사의 스마트워치인 ‘애플워치’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또한 주가 상승에 기여
- 한편, 나스닥지수 편입 종목의 수는 감소하지만 바이오테크놀로지 업종들은 증가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중국, 희토류(Rare earth resources) 수출관세 폐지

- 지난 23일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희토류(Rare earth resources)와 텅스텐, 몰리브덴, 알루미늄 등 일부 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
 - 이는 올해 1월 중국 상무부가 이들에 대한 수출 쿼터를 없앤데 이은 후속 조치이며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에 25%, 텅스텐과 몰리브덴에 20%, 알루미늄 합금에 15%의 수출세를 매겨옴
- 세계무역기구(WTO)는 중국의 희토류와 일부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미국, 일본, EU의 주장에 대해 올해 이를 인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림
- 한편, 알루미늄의 경우 세계 원자재 가격의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 수출이 급증, 리오 틴토, 알코아 등 다른 경쟁 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
2) 위안화, 가치 상승 전환

- 지난 24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이날 위안화 가치를 지난 1월 중순 이후 가장 높게 고시했다고 보도
 - 고시환율은 달러당 6.1241위안이며 전날 6.1281위안에 비해 달러 대비 위안 가치가 0.07% 상승, 올해 위안화 가치는 0.4% 상승

- 중국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로 핫머니(단기 투기자금)의 갑작스런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방어, 강제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고시환율을 조정하는 분위기라고 풀이
 - 이는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고시환율의 상하 2% 범위에서 변동하기 때문
- 투자은행 CIBC 월드마켓의 환율 전략가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기업들의 잇단 채무불이행(디폴트)은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를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며 최근 중국의 자본 이탈 분위기를 설명
- 한편, 중국 국가외환관리국(SAFE)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은 지난달 1565억위안 (252억달러) 규모의 외화를 순매도함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우버, 중국에서 항공 서비스 출시 계획

- 지난 23일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콜텍시앳 업체 우버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항공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
- 우버는 24일 상하이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관광 서비스 ‘우버초퍼(UberShopper)’를 하루짜리 홍보행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우버의 이름을 알리고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됨

- 이미 중국 콜택시 시장은 중국 콜택시 앱업체 콰이디다처와 디디다처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버는 자신들이 고가 서비스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
 - 아우디 등 고급차량을 제공하는 ‘우버블랙(UberBlack)’과 저렴한 차량공유 서비스 ‘인민의 우버(People’s Uber)’를 작년부턴 제공
- 한편, 중국 당국은 공공 택시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

2) 컴캐스트·타임워너 합병, 규제당국 반대에 결국 철회

- 지난 23일 WSJ은 미국 케이블 업계 1위 업체 컴캐스트가 452억달러(약 48조 9천 561억원) 규모의 타임워너케이블 인수안 철회를 계획중이라고 보도
- 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와 법무부가 컴캐스트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것을 우려해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
 - FCC는 인수 절차가 진행될 경우 길고 복잡한 고비용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자체도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, 법무부 또한 최근 다른 미디어 기업들에게 컴캐스트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사례를 요청, 검토하고 있는 상황
- 한편, 전문가들은 컴캐스트가 타임워너 인수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인수에 나설 것으로 분석
 - 당초 컴캐스트와 인수 경쟁을 벌였던 차터커뮤니케이션은 유력한 차기 인수 후보자 중 하나로 여전히 타임워너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